

전국 아파트 평균가 조사해보니

광주 아파트 6채 팔아야 서울에 아파트 1채 산다

광주 평균가 9,212만원... 5대 광역시중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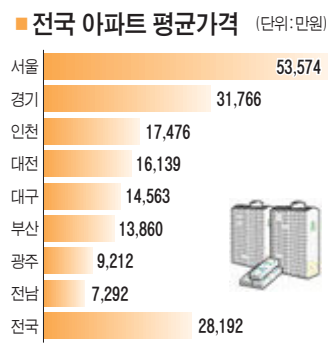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6채를 팔아야 서울의 집 1채를 살 수 있을 만큼 지역별 집값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사이 서울은 호남 평균 가격이 5억원대를 넘어설 만큼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아파트 평균가격(시가총액을 총 가구수로 나눈 값)은 9천2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의 평균가격(2억8천192만원)의 3분의 1을 밑도는 것으로,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5억3천574만원)의 17% 수준이다. 광주의 아파트 6채를 팔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1채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광주는 또 지방 5대 광역시 평균(1억3천724만원)은 물론 충남·북, 경남, 제주 등 일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 부동산시장의 상대적인 침체를 반영했다.

실제 지방 광역시의 경우 ▲대전 1억6천139만원 ▲대구 1억4천563만원 ▲부산 1억3천860만원 ▲울산 1억1천만원 등으로 모두 1억 원대를 웃돌았다.

또 제주(1억5천373만원)를 비롯, ▲충남(1억1천936만원) ▲경남(1억1천374만원) ▲충북(1억246만원) 등 일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도 광주의 평균가격보다 높았다.

전남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은 아파트 1채당 평균가격이 7천292만원에 그쳤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강원(8천771만원) ▲경북(8천

218만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도 집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방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11억6천503만원) ▲서초구(10억4천318만원) ▲송파구(8억7천553만원) ▲용인시(4억6천877만원)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또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이 각각 3억1천766만원, 1억7천476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과천시(9억4천113만원), 성남시(5억8천950만원), 용인시(4억6천877만원)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에 강타한 '집값 광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이밖에 ▲안양시(3억7천579만원) ▲의왕시(3억6천363만원) ▲고양시(3억4천766만원) ▲하남시(3억2천916만원) ▲군포시(3억2천874만원) ▲구리시(3억2천256만원)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950원대 진입한 5일 오후 서울 제일은행 본점에서 외환딜러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환율변동폭을 살피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영업일만 50원 이상 급등하며 반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립뉴스

“OECD 보고서 한국경제 잘못 반영했다”

재경부, 정부정책 비판적 초안 수정 요구

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 정책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이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확한 사실 전달과 함께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EDRC) 한국경제검토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정책 배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보고서의 수정요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OECD의 한국경제보고

서 초안은 EDRC에서의 논의를 위해 OECD 사무국이 작성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초안이 우리 경제의 상황과 정책배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EDRC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 토론 등을 거친 뒤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것”이라며 “최종보고서 발간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수정·조정 범위 내에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상황 검토

를 위해 정기적(약 18개월 주기)으로 EDRC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7~8월에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EDRC 한국경제검토회의를 개최한다. 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에는 부동산 정책과 재정운영 등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한 개입정책을 오랫동안 펴 오면서 집값의 변동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만원·1천원권 새화폐 유통 22.7%로 높아져

올해 1월22일 발행된 새 1만원·1천원권이 2월말까지 9억5000만장이 발행돼 유통중인 전체 1만원·1천원권 가운데 장수 기준으로 22.7%, 금액 기준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5일 밝혔다.

새 1천원권은 발행개시 이후 2월말까지 모두 5조4천71억원이 발행되고 437억원이 환수돼 전체 유통 1천원권 가운데 20.6%를 차지하고 있다.

새 1천원권은 3천643억원이 발행되고 9억원이 환수, 전체 통 1천원권 가운데 26.6%를 점하고 있다.

한편 2월말 현재 전체 지폐 가운데 1천원권의 유통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4.8%, 장수 기준으로 32.2%를 차지, 새 지폐 발행 직전(1월19일 기준)의 4.3%, 30.0%에 비해 비중이 소폭 확대됐다. /장필수기자 bungy@

장애인 기업 1,761곳 장애인 고용률 51%

중소기업청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장애인기업 1천761곳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말 현재 이들 기업의 장애인 직원 비율이 평균 51.2%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일반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1.45%에 그쳤다.

중기청은 또 2006 장애인기업의 2003-2005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받은 장애인 기업 41곳 중 매출액이나 순이익, 영업이익 등 항목 중 1가지 이상에서 3% 이상 성장한 '성장기업'이 58.5%에 달한 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159개 기업 중 성장기업은 29.6%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

대기업-중소 평균연봉 9.1%차

부장급 18.6%로 최대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간 연봉은 평균 9.1%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연봉전문 사이트 오픈솔라리(www.opensalary.com)는 4년제 대졸 신입자 기준 정규직 직장인의 작년도 직

급별 연봉초입 정보 9천346건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평균연봉 차이가 가장 많은 직급은 부장급으로 중소기업은 4천13만원, 대기업은 이보다 18.6% 높은 4천759만원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다른 직급의 연봉차이는 사원급이 8.6%(대기업 2천254만원, 중소기업 1천983만원), 주임급 9.1%(2천515만원, 2천303만원), 대리급 7.0%(2천832만원, 2천646만원), 과장급 10.3%(3천542만원, 3천194만원), 차장급 11.0%(4천267만원, 3천843만원) 등이었다.

직급간 연봉인상률은 대리에서 과장승진시가 가장 높아 대기업은 평균 24.4%, 중소기업은 20.7% 연봉이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은폐된 근로자 산업재해 통계치보다 2~3배 높아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이 실제로는 공식 통계치보다 2~3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은폐된 산업 규모가 처음으로 분석된 셈이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교수팀은 경인지역의 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 6만1천999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된 업무상 질환 가운데 산재보험에 보고되지 않은 규모를 추정해 결과, 실제 산업재해율이 공식 통계치보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일본에서 발간하는 산업재해 분야 국제학술지(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임동욱기자 tuim@

보해 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최

해남매실농원 17일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오는 17일 해남 매실농원에서 '매화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진 전문가들을 위한 과거 콘테스트와는 달리 사진 동호회, 일반인 등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6일까지 보해 매화사진 콘테스트 홈페이지(www.bohaephoto.co.kr)를 통해 인터넷 예약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출품은

20~23일 부분별로 각 3점씩(디지털 이미지 2048×1536 이상 JPEG, TIFF)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4월9일 보해 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상품이 수여된다.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4명에게는 각각 상금 70만원, 50만원, 30만원과 상장·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보해는 국내 최고의 '매실' 전문 기업으로, 보해양조에서는 5년 숙성 매취순, 10년 숙성 순금매취 등 다양한 매실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062)384-9300~2.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온화하지 않은 편인함, 소리없는 편인함
 OPEN
 11:00 ~ 11:00

SELF WINE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 만들 수 있는 곳
 자기 연봉 확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곳
 (062) 384-9300